



국민연금,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개소

국민연금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강력방어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어 구축을 마쳤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사이버 공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용공간 'NPS 사이버보안 관제센터'를 6일 개소했다. 사이버보안 관제센터는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917조 원(2022년 8월말 기준)의 기금과 1조 건에 달하는 연금데이터를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에 따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대, '일·영 멀티링구얼 스피치 콘테스트'

전주대학교 일본어문화학과는 최근 진리관에서 '일·영 멀티링구얼 스피치 콘테스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다섯 번째로 이 대회는 인문대학장배로 진행됐다. 참가자는 일본어와 영어를 번갈아 사용해 신조어, AI, MBTI, 퍼스널모델링, 국제교류 등 다양한 주제로 약 4분 정도의 스피치를 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영어영문학과 황요한 교수는 "학생들의 수준 높은 다언어 능력이 놀라울 뿐"이라며 "앞으로 일본어문화학과와 영어영문학과가 학생들의 언어 교육에 더욱 협력해 훌륭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완산소방서, 대공간 지하층 피난안전관리 강화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고층건축물, 아파트, 물류창고 대형 판매시설'의 지하주차장 등 대공간 지하층 피난안전관리 강화를 6일 당부했다. 지하층은 공간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다량의 연기와 열기가 건물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대피가 어렵고 소방활동 시 시야확보가 어려워 대형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대공간 지하층의 화재 발생 시 피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 주차장 사무실 등 주요 장소에 피난 안내도 및 소방시설 배치도 부착, 지하층 바닥면 피난유도선, 픽토그램 등 근거리 대피동선 도식화, 출입구 상부 하부에 피난유도등 설치, 공기호흡기 설치, 전기차 충전시설, 분리수거장 주변에 지능형 α-TV설치' 등을 당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덕진소방서, 의용소방대 유물·기념작품 공모전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철현)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높이고자 열리는 '의용소방대 유물 및 기념작품 공모전' 개최 계획을 일렸다. 전주덕진소방서는 내년도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앞두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담긴 의용소방대 관련 유물을 발굴하고 의용소방대와 관련한 미술 작품 공모를 통해 의용소방대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높이고자 '의용소방대 유물 및 기념작품 공모전'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은 소방청과 전국유용소방대연합회에서 주체하며 공모전의 공모 주제는 의용소방대의 역사와 정신(희생·봉사·의용) 및 활동과 관련된 소재(또는 주제)로 한 유물·작품으로 공모 분야는 '유물(임용장, 복제, 장비 등 역사성이 담긴 물건), 미술(서예, 캘리그래피, 회화, 민화 등), 사진·영상(사진 11 x 14인치(27.9cm x 35.56cm) 이상 ~ 20 x 24인치(50.8cm x 60.96cm) 규격, 영상 Full-HD(1920 x 1080) 이상 가로모드 촬영 재생시간 5분 이내) 3개 부문이며, 초등학생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공모전 접수는 1·2차로 진행되며 1차 접수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고 모든 작품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2차 접수는 1차 평가를 통과한 실물을 접수하는 단계로 내년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시상은 총 88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해 총 910만원(금상 1점 200만원, 은상 3점 70만원, 동상 7점 30만원, 입선 7점 20만원, 가작 50점 3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은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063-260-4231)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

주민과 깨끗한 연안 조성 행정 협력 '결실'

전북도, '해양쓰레기 정화' 균형발전사업 우수 기관 표창

전북도가 6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주관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광역자치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김 양식장 폐어구를 과수원 내 유해동물 차단용 울타리로 재활용한 사례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균형위는 2013년부터 매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성공 사례를 발굴·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주민과 행정의 손을 맞잡고 추진한 전북도의 깨끗한 고군산군도, 아름다운 어촌마을이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지역주민과 행정의 함께 마을별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책임자를 선정해 자체적으로 해양환경 정비 활동을 추진하고, 주민 자율적으로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직원들에게 아주 의미있는 상"이라며 "전라북도는 앞으로도 깨끗한 바다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수기자



LX-해양조사원, 해양·지적조사 상생 협약

LX 한국 국토정보 공사(사장 김정렬)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변재영)은 해양영토의 효율적 이용·개발·보전을 위해 '해양·지적 조사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측량 및 지도 제작 상호 지원을 위한 협정서'를 토대로 기후변화·조수간만 등에 의해 변경되는 해안선 실재조사를 통해 해양조사 및 지적제도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LX 공사는 도서지역의 지적 조사·연구, 신기술(원격탐사) 도입했다. 두 기관은 정보·인력 교류, 교육 훈련·신기술 협력, 해양조사·지적 연구개발 및 제도 협력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한국·독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전주대 김창권 교수, 국회서 심포지엄 열어

전주대 김창권 교수(물류무역학과)는 (사)한국동경상학회 회장 자격으로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한국과 독일 자동차산업이 디지털화와 기후 위기 등에 직면한 가운데 양국의 노사정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산업 대전환의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뤘다.

독일 측 전문가로 프라우엔호프연구소 안나 그림 박사 등 3명과 한국 측 전문가 4명이 참석해 총 8개의 발제가 다뤄졌다. 특히 안나 그림 박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유럽연합(EU) 차원의 정치적 규제와 모빌리티 전반의 디지털화, 글로벌 변수를 독일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3대 요인으로 꼽았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자동차산업에서의 노사정 합의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독일의 경험을 공유했다.

한편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공동주최자인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서울사무소 헤닝 에프너 소장, 한국의원전선협회 장인 이상민 의원,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회장 김성환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양정숙 의원, 최형두 의원 등 약 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행사 주최자인 김창권 교수는 "산업 대전환은 자동차산업의 전면적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변화도 초래할 것"이라며 "자동차산업의 전환을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실현하기 위해 노사정의 전략과 정책이 무엇인지 서로의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 학습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한 산업전환기에 사회로 진출하는 대학생들에게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한"이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박경민 교수, 최우수논문상 수상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최근 여수 유람비리나 호텔에서 열린 2022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박경민 교수(자동차과)가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LINC3.0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탁월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멀티라이트를 응용한 간헐지 비스판지 및 토양개량 효과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논문이 대회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주비전대학교와 (주)유제이가 공동 수행한 LINC 3.0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의 산학연구과제물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농협-임실축협, 나눔축산운동 펼쳐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북지부(지부장 김시중), 임실축협(조합장 한득수)은 임실군 소재 사회복지협의회와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나눔축산운동 소의계층을 위한 축산물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임실축협 임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소의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했으며, 참석자들은 폐지갈비세트 등 300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전달하고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나눔축산운동의 뜻도 함께했다. /김영태 기자



전개공, 입주민 308가구에 '사랑의 김치' 전달

전북개발공사는 지역사회 소의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 308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6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큰나눔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기관과 함께 김장김치 308박스(박스당 7kg)를 전달하며, 소의계층의 겨울나기 지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치를 전달받은 한 주민은 "겨울철마다 김장김치 마련이 걱정되었는데 공사에서 직접 김치를 전해주시어 한시를 놓았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군산도시가스군산상의, 사랑의 연탄 나눔

군산시는 6일 군산도시가스(주) 및 군산상공회의소 임직원 40여 명이 연탄 지원 자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관내 3가정에 연탄을 직접 전달하는 나눔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석한 김동수 군산도시가스(주) 회장 겸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마음조차 외롭지 않기를 바라며,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관록 기자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 '러닝 헬퍼' 성료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지난 5일 2022학년도 러닝 헬퍼(Learning Helper)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습리더가 주체가 돼 운영되는 호원대 교유의 프로그램으로서 학습코치인 러닝 헬퍼를 중심으로 신입생 특강, 재학생 특강 상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학습문화를 형성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러닝 헬퍼 프로그램은 3월 신입생 특강을 시작으로 5월~6월 학과별 맞춤 학습법 특강 및 학습상담을 실시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는 총 238명이 참여했다. 또한 8~10월 실시한 동아리 모임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전공 간 지식의 융합을 시도하며 학문적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2021년 12월, 2022년 2월 총 2차례의 사전교육과 3월 발대식을 거쳐 러닝 헬퍼 50명이 임명되고, 4월 학습코치 리더십특강 11월 러닝 헬퍼 리더십특강 등 러닝 헬퍼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실시했다. /정은성 기자



충청신문 김충현 사장, 무주군에 백미 기탁

충청신문 김충현 사장이 6일 추운겨울을 맞아 무주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면서 무주군에 백미 1,000kg을 기탁했다.

무주가 고향인 김충현 사장은 이날 최인석 부사장과 함께 무주군을 찾아 추운겨울을 맞아 고향 무주지역 소의계층 주민들이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작곡가 정성을 보탠다"라며 "고향 무주군이 발전하고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민주평동 무주지부,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민주평동민주지부의 무주군협의회(회장 최진만)가 지난 5일 여성센터 요리교실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진만 회장은 "이 작은 나눔의 씨앗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정성과 사랑으로 빚어진 김치를 탈북민과 다문화, 소의계층 등 100여 가구에 전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